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의견 구한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위해 공개 시민간담회 개최 -

올 6월 개최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월드컵 중계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유료방송 채널에서 단독 중계됨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 6월 11일~7월 1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북중미 월드컵도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 난항으로 국민 시청권 보장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조영신 동국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 체육계 관계자,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시청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고 누구나 올림픽·월드컵 등 문화적 공공재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의 지혜와 뜨거운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02-2110-1270)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지권 (02-2110-1261)
			사무관	신창환 (02-2110-12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